

박사 스님이 뽑은 사찰 상식 100가지



사찰의 상징세계 상·하
지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천원

사찰에 가서 사진 지식이 없으면 궁궁한 것들이 많아진다. 이를 테면 왜 대웅전에는 불상이 세 개일까? 사찰 입구에는 사천왕상이 있을까? 불상은 왜 금색을 입을까? 등등.

하지만 흑여 궁궁한 마음이 들어도 맘 놓고 물어볼 곳이 없다. 흑시라도 실수라도 하면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라 할지라도 사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지 만무하다. 이제 그런 이들의 불편함을 없애줄 것 같다. 이 책을 유심히 읽어보면 웬만한 궁궁증은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은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100개의 질문으로 묶고 이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사찰 곳곳에 담긴 은유와 상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설명하는 '사찰의 상징세계' 속에는 단순 문양뿐 아니라 일주문서 해우소까지 사찰 전체의 구조와 전각 그리고 불화도 들어 있으며 무형인 불교 의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이 책에는 사찰에 자주 다녀보지 않은 이들을 위해 주요 전각이나 불화뿐 아니라 자주 다녔어도 쉽게 지나치기 쉬운 각종 문양, 상징까지, 모두

330여 장의 사진이 글과 함께 실려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단순히 사찰의 상징에 대해, 우리의 궁궁증 하나하나를 친절히 설명해 주는데 있지 않다. 그것뿐이라면 이미 문화해설이나 사찰 안내를 주제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좀 다르다. 불교학, 동양철학,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스님의 이력답게 사찰 구조나 상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리적, 역사적, 문화적 연원을 하나하나 밝혀주고 있다. 여기에 인도, 중국 등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이전 불교가 거쳐 왔던 많은 지역의 풍습과 의례 그리고 마지막으 불교와 이웃종교와의 교류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다 보면 2000년을 넘어 유전되어온 불교 고유의 문화가 우리 사찰에 어떻게 담겨졌는지 뿐 아니라 나라 변형되기도 하고 때론 오해와 착각 속에 그냥 남아 있기도 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이 책은 가볍게 사찰을 방문하고자 하는 초심자에서부터 인문학이나 미술 전공자까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예를들면 이렇다. 사찰 입구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 사천왕은 무관복장을 하고 당당한 기품을 보이는데 불교우주론에 따르면 사천왕은 왕이기 때문에 무관복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천왕은 천하의 악에 대한 제압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악귀를 밟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북쪽지방에서는 이 악귀가 청나라 만주족으로, 남쪽에서는 일본인으로 묘사된다는 것이 다. 그동안 사천왕만 봤지 밟아 밟아 악귀



배출림 기둥은 그리스 신전처럼 안쪽이 빈 경우에만 시각 보정효과를 준다. 사진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교리, 역사, 문화적 연원도 함께 밝혀 한 장에 20~40개 질문과 답 구성
이웃 종교와의 유사성도 비교 설명
330여 컷 사진 등 풍부한 시각 자료

는 대부분 농진 경우가 많았을 거 같은데 이렇듯 이 책 곳곳에 나와 있는 100가지 궁궁증을 풀다보면 같이 사찰을 방문한 이들에게 '사찰박사' '문화재해설사' 등의 넉넉함을 얻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상하 각권 합쳐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장은 20~40여 개의 질문으로 묶여 있는데 이 책의 시작은 우선 일주문에서 해우소까지 사찰의 구조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산사에 가보면 대체로 절의 구조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울을 건너는 다리와 일주문, 그 너머에 있는 전왕문,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탑과 대웅전이 나타난다. 이런 유사 구조는 동일한 관점에 따라서 가람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한옥식의 복합건물이지만 향교나 왕궁과 사찰을 혼동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유사함의 배경에는 불교의 수미산 우주론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첫 장인 사찰의 구조에서는 "절은 왜 산에 많은가?",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라는 의미인가?", "사천왕은 어떻게 구분하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왜 어떤 사찰은 탑이 하나고 어떤 사찰은 탑이 두 개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불교의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찰의 구조에 대해 역사·문화적 해석을 시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팔상도 따라간 인도 네팔 순례



부처님 8대 인연이야기
정찬주 지음
김영사 펴냄
1만5천원

의 눈과 손끝은 현지인들의 표정과 생활을 오롯이 담아낸다.

순례지 중 한 곳인 '상카시아'에는 아직도 부처님의 직계 후손들이 살고 있다. '사카(석가)'라는 성을 쓰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어머니 마야부인을 너무 그리워하여 도리천까지 찾아갔던 부처님의 천진한 마음을 이어받은 듯하다.

부처님이 제자 사리불과 머뭇던 나란다 마을에는 세계 최고(最古) 대학인 나란다 대학 터가 웅장하게 남아 있다.

사리불의 무덤이 있던 이곳에 아쇼카왕이 참배를 와 사원을 지었고 그것이 대학의 기원이 되었다.

부처님이 처음 가르침을 전하셨다면 아쇼카왕은 그 가르침을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다. 불교가 중국과 동남아 등 각지로 뻗어나간 데는 누구보다 그의 노력이 컸으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승려들은 나란다대학에서 불교를 배우며 고국의 소식을 그리워하곤 했다.

“내생 위해 금생 도 닦아야”

인도 네팔 현지인 삶도 담아내 부처님 인연지엔 아쇼카석주 있어 바라나시서 쿠시나가라 순례

부처님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에는 전 세계에서 나이와 인종의 구분 없이 간절한 신심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들은 오로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다 가신 부처님의 생을 기억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는 죽음을 준비하는 노스님들과 삶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젊은 스님의 모습에서 생과 사도 겹쳐 본다. 그리고 그 순간 먼저 가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내려놓으며 온몸으로 타인과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심한다.

그리고 저자가 마지막 장에서 소개한 '자신을 등불삼고, 법을 등불 삼고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은 현재 도박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불교에 촌철살인같은 사자후로 큰 울림을 전한다.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 부처님은 불자들이 무언가에 매여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오직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고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생을 살아 가기를 바라셨다. 그것이 저자가 아니 부처님이 이 책에서 우리 중생들에게 준 큰 선물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전생부터 장엄한 열반까지 부처님의 생을 여덟 장면으로 압축해 그림으로 펼쳐 놓은 것이 '팔상도'며 글로 요약한 것이 '팔상록'이다. <팔상록>은 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 전래된다. 절에서 팔상도가 그려진 것은 불경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 신도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였을 것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이 책은 분지에서 '아쇼카 대왕 유적기행'을 연재중인 정찬주 작가가 팔상도에 나타난 대사건들을 따라 인도와 네팔 전역을 순례한 불교 예세이다.

지금 인도인들의 삶에 부처님의 생애를 오버랩시키며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와 종교적 방향,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오직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다 열반하신 회생의 삶을 잔잔하게 펼쳐 놓았다.

저자의 구도 여행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바라나시에서 시작된다.

'영적으로 충만한 도시'란 뜻을 지닌 바라나시의 부드러운 강가강 모래밭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생각한다.

저자는 부처님이 이 땅에 싯타르타라는 인간으로 태어난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속된 윤회의 세월 동안 자비의 화신으로서 공덕을 쌓으셨고, 마침내 부처님이 될 필연에 의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는 것이다.

이런 인과 논리는 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다. 저자는 "내생에 무엇을 받을 것인지 알고 싶을지, 금생에 하는 것이다"라는 불가의 전언을 인용하며, 내생의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애에 할 일을 고민하라고 조언한다.

즉 불교에는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것이 인과에 의한 필연이기 때문에 원력이란 인(因)이 있었으니 탄생이란 과(果)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곳이면 대부분 아쇼카왕의 석주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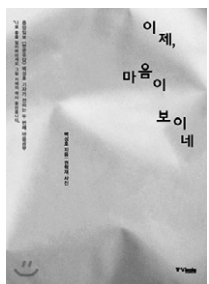
이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 우연이 던져진 인간 존재가 아닌 오랜 수행과 원력이 있었기에 필연에 의한 축복적 탄생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자는 설명한다.

부처님의 전 생애를 좇아가는 저자의 발걸음은 인도와 네팔 전역을 누비며 그

종교계 선지식에게 듣는 '참나 찾기'

이제 마음이 보이네

백성호 지음 | 중앙북스 펴냄 | 1만3800원



이 책은 저자가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하며 만난 다양한 종교계의 인사들과의 인터뷰, 옛 성인의 일화, 그리고 일상의 성찰을 통해 진짜 나를 위한 마음을 찾는 가장 간단한 비밀을 전한다. 현 각 스님이 말하는 '참나'를 찾는 방법, 고우 스님의 일상 구도법, 이용규 선교사가 말하는 내려놓음의 의미, 이재철 목사가 말하는 버릴수록 채워지는 비밀, 정진석 추기경이 전하는 나눈 등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없는 깊은 성찰을 종교전문기자의 시선을 통해 전달한다. 아픈 상처와 치유법, 욕심과 내려놓음, 개인과 타인 사이의 조화 등으로 나누어진 주제들은 각각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전하는 일상 구도의 비밀은 간단하다. 일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견어내 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좇아간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 집착'이니 우리 마음을 견어내고 나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일도 없다고 말한다. "가볍게, 가볍게 고집스런 오랜 나를 훌훌 벗어 버리세요. 그런 하루의 변화가 1년 뒤에 꽃이 되고, 1년의 꽃이 피면 인생의 나무도 자라날 겁니다." 저자는 독자들로 이 간단한 깨우침을 공식처럼 다른 고민에도 대입해 변화에서 자유롭길 바란다. 김주일 기자

2800용어 쉽게 해설한 한영불교사전

현대 한영 불교용어사전

박종애 지음 | 푸른향기 펴냄 | 2만8천원



2004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설립한 이후 전 세계 수십여 국가에서 포교에 앞장서 온 종대스님. 스님은 오랜 외국생활과 해외 불교대학과의 인연으로 어려운 불교용어를 간결하고 쉽게 편집했다. 불교 용어의 원뜻을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책은 현재 미국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영어를 바탕으로 쓰였으며 범어 역시 현대 사회에 알맞도

록 쉬운 알파벳을 사용하였다. 또한 오랜 세월 종대스님이 경험한 절집안의 일반적이고 통속적인 언어들을 삽입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로 있는 종대 스님은 우선 방대한 불교용어를 2800단어로 집약해 한글, 한문, 범어, 영어로 나눠서 설명했다. 중요치 않다고 여기기나 일상적 용어는 과감히 배제시켰다. 또한 불교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지식이 되어주는 불교 용어만을 선별해 쉽고 간결하게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포교에 뜻을 둔 스님들과 한국불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불교 공부하려는 불자는 물론 마음공부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www.minjoksa.org

경허선사가 살아 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버트 서먼 교수의 내한 인터뷰 중에서)

“만공이 스승 경허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술이 있으면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합니다만, 스님은 왜 그렇게 술을 드시는 겁니까?” 경허는 만공의 말꼬리를 끊으며 말했다. “히 참, 자네는 아주 도가 높네 그려. 나 같으면 술을 먹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밀씨를 구해서 잘 키워 술을 빚어서 마시고 또 마시겠네. 또 파전이 먹고 싶으면 파씨를 구해다가 잘 가꾸어서 파전을 먹고 또 먹겠네.””

술에 취해 꽃밭에 누운 선승

경허

글·일지 | 352쪽 | 13,000원 | 소프트양장(150×208mm)

민주소 사육시 중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신위바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이메일 minjoksa@cho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시골벽천한 마을이여 지금, 잠시, 쉬었다 가거라.

행복한 마음의 휴식... 지치고 힘겨운 당신에게 복잡하고 빠르게 뛰는 당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합니다.

민주소